

## 한문운문의 한 형식으로서의 찬과 송

김 희 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형상원천인 인간생활이 풍부해지고 그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데 따라 문학의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33페이지)

문학의 발전력사는 내용의 변화발전과정인 동시에 형식의 변혁과정이었다.

한문의 운문에는 반영하는 내용에 따라 형식이 다른 여러가지 운문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운률조성방식을 일정하게 고려하면서도 반영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운문의 형식들도 있다.

무엇보다 먼저 내용에 따라 갈라지는 한문운문의 형식으로는 찬이 있다.

찬(讚)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 또는 개별적인 인물의 《업적》을 밝히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된 운문이다.

찬은 본래 이미 이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보충한다는 뜻으로 쓰이였다. 이러한 보충적인 내용은 대체로 앞에서 서술한 사실에 대한 평가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찬양이었다. 후날에 이르러 어떤 사건, 사실이나 인물을 찬양하는 내용의 산문을 《찬》으로 명명하면서 운문의 하나의 유형으로 고착되었다.

찬은 어떤 대상을 찬양하여 쓰는 운문으로서 내용이 흔히 과장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봉건통치제도와 봉건군주에 대한 《충의》를 내세우는것으로 지향된다. 그리고 사건, 사실과 인물에 대한 비평은 반드시 봉건유교사상과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적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찬은 일반적으로 4언고시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적운률이 조화롭지 못하고 산문다운 느낌이 강하다. 찬은 두행을 한개의 련으로 만들고 련마다 운을 단다.

彼閑道人 絶學無爲  
此大福田 稱三藏師  
錦袍茜帽 安用緇衣  
不行甚怪 不違于時  
皇王之眷 佛祖之依  
視貌則然 知心者誰  
(《順菴眞讚》《稼亭集》卷七)

한가할손 우리 스승  
하시느 일 없지마는  
거룩할손 우리 스님  
고명하다 일러주네  
비단도포 붉은 쓰개

검은 장삼 왜 입을가  
피이한짓 한적 없고  
세속에도 알맞으니  
나라님 돌봐주고  
부처님 의지하나  
모습이 그러하니  
그 마음 누가 알리

이것은 고려말기 이름난 문인이었던 리곡이 어떤 중의 초상에 써넣은 찬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중의 행적을 찬양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문장은 4언 두행을 한개 련으로 만들고 련마다 평성글자로 압운하였다. 문장에서 운률은 조화롭지 못하고 《視貌則然》처럼 산문구와 같은 행들이 있다.

찬은 명과 같이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글을 짓기에 앞서 그것을 짓게 되는 동기를 서문에 쓴다.

서문은 어디까지나 산문으로 이루어진다. 서문에서는 찬양하여야 할 사건이나 사실, 인물에 대한 소개와 그와 관련한 자기의 립장과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서문을 참작하여야 한다.

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데 따라 사찬과 잡찬, 애찬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사찬은 력사적인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으로 된 운문이다. 사찬은 찬의 초기형식이다.

사찬의 대표적인 실례는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쓴 찬을 들수 있다.

詔寬戮戮千丘惠  
澤洽豚魚四海仁  
莫道聖君輕下世  
上方兜率正芳春

(《法王禁殺》《三國遺事》卷三 興法)

날짐승과 길짐승도 그 은혜로 놓여나고  
산짐승, 물고기도 어진 덕택 흠족하네  
덧없이 떠난 임금 섭섭다 생각마오  
도솔천 하늘에는 꽃피는 봄 한창이라오

이것은 백제의 법왕이 살생을 금지시킨 사실을 노래한 찬이다.

일연은 찬이라는 표제아래 백제의 법왕이 불교를 신봉하여 그 계를대로 일체 동물을 해치지 말데 대한 명령을 내린 사실을 노래하였다. 7언절구형식으로 된 이 찬은 불교를 신봉하여 그 《혜택》이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게 된것을 찬양하였다.

사찬은 산문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찬은 력사적사실, 사건,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산문인 사론과 같다. 지난날 력사책들에서 《贊曰》 또는 《論曰》이라는 표제아래 썼던 력사가의 평이 대체로 사찬이나 사론이었다. 이러한 형식의 글들은 운문이 아니다.

잡찬은 각종 사물현상과 사실을 찬양하여 지은 운문이다.

잡찬은 사물현상을 대하거나 사건, 사실을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서술한다. 잡

찬은 대체로 4언고시형식으로 이루어진다.

沃若桑葉 成爾之身  
能生白纈 其懷如春  
折膠之寒 不能凍人  
嗟爾之功 神之又神  
(《蠶讚》《東國李相國集》卷十九)  
부드러운 뽕잎으로 너의 몸을 이뤘는데  
흰 명주천 만드니 따스하기 봄같았다  
지독히 추운날에 사람들 안얼구니  
아 너의 공 생각하면 신비하고 신비하다

우의 시는 리규보가 누에의 리로움을 노래한 《잠찬》인데 잠찬에 속한다.

4개의 련, 8개의 구로 된 4언고시인데 련마다 압운하였다. 누에에 대한 찬에서는 뽕잎을 먹고 따스한 명주천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하여주는 누에의 《공》을 가장 신비로운것이라고 찬양하였다.

사람에 대하여 쓰는 잠찬은 일반적으로 함축된 말로 인간의 공적을 찬양하는데 여기에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쓰는 자찬과 남에 대하여 쓰는 찬이 있다.

騰名謾譽 於爾孰逢  
爾形至眇 爾言大侗  
宜爾置之 丘壑之中  
(《自寫真讚》《梅月堂詩集》卷七)  
공명도 명예도 너와는 무슨 상관  
못생긴 너의 얼굴 오활한 너의 언사  
심산궁곡속에 파묻혀있는것이 마땅하구나

우의 시는 봉건통치배들의 집권싸움에서 환멸을 느끼고 한동안 무량사에서 중으로 행세하며 절간에 몸을 의탁하였던 김시습이 자기의 화상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써놓은 찬이다. 작품에는 찬양의 감정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그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현실을 타매하는 자신의 립장을 《얼굴》과 《언사》를 가지고 긍정하고있다.

작품은 산문구와 비슷한 4언구로 6개의 행, 3개의 련을 만들고 련의 끝에 압운을 하였다. 따라서 작품은 전반적으로 운문으로서의 운률이 부족한 느낌을 준다.

애찬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의 일생행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난날 봉건사회에서 씌여진 찬에는 그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그것을 쓰는 사람의 계급적립장과 세계관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갈라지는 한문운문의 형식으로는 송이 있다.

송(頌)은 어떤 력사적사건, 사실이나 개별적인물들에 대하여 칭송하는 내용으로 된 운문이다. 송은 원래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만 쓰는 글이었다. 송은 처음에 제천의식때 신에게 고하기 위해 쓰는 글로 되어있었다. 신에게 고하는 송은 덕망을 노래하여 널리 알리며 찬

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송의 문체론적특징을 《오직 규범적이고 우아하며 글은 반드시 깨끗하고 빛난다. 사실을 펴나가는것은 부와 비슷하다. 화려하고 사치한데는 이르지 않으며 공경하고 삼가하는것이 명과 같으나 경계하고 규제하는데는 차이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송이 반영하는 내용이 명과 다르고 사실을 전개하는 방식이 부와 비슷하다는것을 해설한것이다.

사람의 공적에 대한 이른바 찬양과 칭송이 잘 구별되지 않으므로 지난날에는 두 종류를 대체로 함께 말하면서 《송찬》이라고 하거나 《찬송》이라고 하였었다.

송이 사실을 펴나가며 부와 비슷하다고 한것은 그것이 대체로 이른바 공적을 라렬하기때문이며 문장이 화려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내용이 경계하고 규제하지 않는다고 한것은 옛날의 송이 흔히 가무를 겸하는 의식에서 랑송되거나 불리워졌기때문이다.

발생초기의 송은 오직 나라의 통치자와 그의 조상을 위해서만 씌여졌다. 그러나 송에 반영하는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개별적인 인물이나 력사적인 사건, 사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서도 쓰게 되었다. 송은 대체로 4언구로 이루어지며 두개의 행을 하나의 련으로 만들고 련마다 압운을 한다. 그리고 한편의 송안에서 운을 자유롭게 교체하여 쓸수 있다.

송은 찬이나 명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운률이 조화롭지 못하며 산문다운 문장이 많다.

임진조국전쟁때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운 리순신장군이 만든 거북선에 대하여 쓴 《구선송》을 실례들수 있다. 작품에서는 거북선의 생김새와 전투활동과정 그리고 그 특이한 우점과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서사적으로 해설하면서 그것이 력사에 남긴 뚜렷한 공적을 칭송하였다. 리병모는 거북선이 세운 공적을 칭송하였지만 그 리면에는 자기의 선조인 리순신의 공적을 칭송하는데로 내용을 지향시키고있다.

결국 《구선송》 즉 거북선에 대한 칭송은 리순신에 대한 칭송과 련결되어있는것이다. 문장은 마치도 녀자로 이루어진 산문문장같다. 작품에서 《鷁首則凡》, 《散如風雹》와 같은 문장은 전형적인 산문구이다. 그러므로 운률이 째이지 못하였다.

송은 머리말형식의 산문을 첨부하기도 한다. 머리말은 흔히 송을 쓰게 되는 동기를 해설하는 부분이다.

송은 반영하는 내용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흔히 쓰는 송은 어떤 사건, 사실과 개별적인 인물에 대하여 쓰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여 쓰는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쓰는 송은 애송이라고 한다. 애송은 애찬과 류사하다. 애송은 송가적인 성격이 강한것으로 하여 애찬과 구별된다.

봉건사회에서 씌여진 송은 대부분이 봉건군주나 관료출신의 인물들에 대한 《칭송》으로 내용이 꾸며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들에는 일반적으로 사건, 사실에 대한 과장된 서술이 많으며 《칭송》은 봉건국가와 군주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민족고전들을 력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여 유구한 민족유산을 더욱 풍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